

“민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교회 (사 54:2)”

예 배 순 서

1부 08:30 AM
2부 11:00 AM

2021년 5월 2일 **어 린 이 주 일** 인도: 김정국 목사

경배와 찬양 다 같 이
Praising

* 예배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Confession

* 성 시 교 독 교독문 96. 어린이 주일 다 같 이
Responsive Reading (통 71)

찬 송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다 같 이
Hymn (통 299장)

기 도 김정국 목사
Prayer

성 경 봉 독 율기 42:1-6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다 같 이
Choir

말 씬 이제는 눈으로 뵈옵나이다 장규성 목사
Sermon

찬 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다 같 이
Hymn (통 32 장)

헌 금 기 도 김정국 목사
Prayer

헌 금 다 같 이
Offering

알 림 김정국 목사
Announcement

* 찬 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사 다 같 이
Hymn (통 453장)

* 축 도 김정국 목사
Benediction

오늘의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율기 42:5-6)

말씀아침 새벽본문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율 4-6	율 7-9	율 10-12	율 13-15	율 16-19	율 20-22

알리는 말씀

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방문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예배 후 성도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모임

- 11:00 am 주일예배(온/오프라인)/어린이 주일
- 1:30 pm 어린이주일 행사-유치부 운동회(교회)
- 2:30 pm 어린이주일 행사II-유년부/중고등부 운동회(교회)

주중일정

- (화)~(금) 5:45 am 새벽기도회(온라인)
- (수) 8:00 pm 성경공부 인도자 모임(온라인)
- (목) 3:00 pm 제자반 훈련(온라인)
- (금) 8:00 pm 가스펠 프로젝트(온라인)

다음주 행사

11:00 am 주일예배(온/오프라인)

기타사항

- 5월 가정의 달 맞이 <온라인 가족 찬송 경연대회> 안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라인)가족 찬송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각 가정별로 '찬송가' 중 한 곡을 선정하여 가족송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회 이메일 주소인 canaan1976@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1인도 좋고 듀엣도 좋습니다. 보내주시 날짜는 5월 23일 넷째주일까지입니다. 참가하신 모든 가정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고, 입상하신 가정들에게 별도의 상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canaan1976@gmail.com 혹은 목회실로 문의바랍니다.
- 온라인 새벽기도회는 별도 알람 없이 매주 (화~금) 오전 5:45에 들려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SUBSCRIBE)'을 하시길 바랍니다(검색: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 오늘 설교는 '계시록 산책'을 강의해 주신 장규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헌금안내

- 현장: 예배당 입구 헌금함/ 교회 입구 메일함
- 우편: 125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 온라인: Paypal "canaanchurch1976@gmail.com"

4월 5일~4월 25일 주일 헌금

차이영 이영길 이옥자 김정국 이상철 김대목 김경호 이수정 이보람 우지선 김성진 김정국 정윤권 전승평 이재희 이보람 이수정 박지환 장규성 조지연 한윤정 임동규 김성진 박지환 장규성 이상택 박지환 이용삼 김정국 김길봉 김대목 박부명 이재희 전승평 정윤권 최준택 광창우 김상규 김순자 김진호 한은희 박지환 서재혁 이상철 윤방지 이보람 이상길 이수정 이을승 이준세 이찬희 이홍자 정진원 차이영 이경희 김대목 이재희 광창우 김정화 김진호 이보람 이수정 차이영 송혜림 조형숙 무 명 *같은 항목 중복은 한 번만 기록하였습니다.

공동새벽기도제목

- '코로나재난 극복'
- 월: 소망회
- 개인의 경건
- 화: 아론 한나
- 환우와 직장/사업
- 수: 이삭 리브가
- 베드로 마리아
- 지역과 이웃
- 목: 안드레 에스더
- 나라와 선교
- 금: 여호수아 청년
- 교회의 부흥
- 토: 주일학교 교육부
- 예배의 회복

파송선교

- 중동B
- 1불선교
- 브니엘다민족교회
- 트리니티 한인학생회
- 밀알선교회
- 시카고 워십

고통과 씨름하다

11월 1일은 만성절이다. 이날 아침 리스본 인구의 대부분은 교회에 모여 있었다. 18세기 중반에 리스본은 유럽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경건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징글맛을 정도로 보수적이던 로마가톨릭의 중심지였다. 리스본 주민 25만 명 중 무려 2만5천 명이 신부나 수사, 수녀였는데 이것은 시민 열 명 중 한 명꼴이었다. 역사가 찰스 박서는 당시 리스본을 포함하여 포르투갈이, 티베트를 제외하고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인구별 성직자 수가 높았다고 말했다... 리스본의 거리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헌신을 보이기 위해 자기 몸을 채찍과 사슬로 때리고 가슴을 쳐가며 "참회! 참회!"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무리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리스본은 경건할 뿐 아니라 성결하기를 원했다.

오전 9시 반 경, 북대서양 약 100킬로미터 지점 밖에서 거대한 지진이 해저를 뒤흔든 다음 그 여진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도시를 향해 밀려왔다. 그 순간 리스본에는 교회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이 도시의 수호성인을 기리는 성 빈센트 대성당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과 꼭 찼다. 미처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건물 입구의 계단부터 광장에 이르기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신부가 "이 축제의 날에 우리 모두 주님을 즐거워 합시다"를 읊조리던 바로 그때, 성 빈센트 성당의 벽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종탑은 바람 앞의 갈대처럼 휘청거렸고, 종은 미친 듯이 울러댔으며, 촛대는 바닥으로 안정없이 내동댕이쳐졌다. 공황 상태에 빠진 신부들은 계단에서 도망치기 급급했다. 어떤 이들은 자비를 구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또 다른 이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이들이 맞닥뜨린 것은 다른 교회와 건물에서 역시 놀라서 쏟아져 나온 일단의 군중이었다. 이내 이들은 두 번째 더욱 강력한 충격파를 만났다(현대 과학자들의 추측으로는 리히터 규모 7.0에 달하는 강도였다). 이 충격파로 건물들이 쓰러지고 도시가 주저앉기 시작했다.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 머리 위로 교회와 주택, 공공건물이 연속해서 무너져 내렸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즉사했을 뿐 아니라 곳곳에 유혈이 낭자했다. 건물 잔해더미에서 발생한 연기와 먼지로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궁핍을 배부소서. 오 주님, 궁핍을!"을 외치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온 도시를 뒤덮었다.

하지만 아무런 자비도 없었다. 교회 건물이 흔들리면서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촛대에서 번지기 시작한 불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는 바람을 타고 온 도시를 난폭하게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이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듯 수 분 후에는 세 번째 충격파가 도시를 강타했다. 이제는 파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화염에 휩싸인 도시, 잔해와 시체로 뒤덮인 땅에서 크나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생존자들은 본능적으로 타호강 쪽,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항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처럼, 이 악한 힘은 리스본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능적으로 이들을 뒤쫓는 듯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를 이용하여 화염에 휩싸인 이 만신창이 도시로부터 도망하기를 고대하며 부닷가에 서 있었지만, 일부 기록에 따르면 급작스럽고 신기하게도 강물은 무언가에 빨려나간 듯 말라버렸고 배들은 바다로 떠내려갔으며, 바닥을 드러낸 항구에는 낡은 난파선과 쓰레기만이 나뒹굴었다. 이 불운한 징조에 놀란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이들은 항만의 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진의 영향으로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이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차마 공포를 느낄 틈도 없이 거대한 물 벽이 이들을 덮쳤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갑작스러운 해일에 생명을 잃었다.

그날 만성절에 리스본에서 정확히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 어떤 이는 1만5천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5-6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 여러 주에 걸쳐 희생자들의 시신이 계속 항구 주변에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토마스 G. 룡, <고통과 씨름하다>중에서-

가정예배 5월 첫째 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

함께 기도 |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참된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읽기 | 아래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잠언 1:8-19

함께 묵상 |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솔로몬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10절)?
-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 누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까(8절)?

함께 나눔 |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출처: 성서유니온선교회>

CANAAN CHURCH

가나안교회는 선교·교육·봉사를 목표로 1976년 11월 28일 나일스 지역에 세워져, 말씀과 신앙, 믿음과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서, 성경을 바탕으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로교 전통의 독립교회입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05:45
금요일예배	저녁 08:00
선교회모임	매월 둘째 주
구역모임	매월 셋째 주

교회학교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01:00
금요모임	저녁 08:00

청년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저녁 08:00

부속

라인댄스반	목요 오전 10:00
가나안한국학교	토요 오전 09:30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이용삼	847-724-2456
담임목사	김정국	224-577-5229
전도사(유치)	이수정	224-587-3815
전도사(유년)	서줄리	224-612-1315
전도사(Youth)	김태중	224-727-9830
지휘자		1부
		2부
파송선교사	양선한 허목자(중동)	

찾아오는 길



1255 N.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TEL: 224-735-2346 www.canaan.org

CANAAN CHURCH

